

# 초대교회 주요 예배문서의 이해와 현대 개신교 예배의 비평적 재구성

김 순 환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I. 들어가는 말

세계 주요 교회들 상당수가 오랜 전통 속의 예배 내용이나 형식 등을 새롭게 조명하고 비교적 형식적으로 자유로웠던 종전의 예배들에 대해 예전성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나왔다. 비록 그런 움직임에 참여한 교회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라고 할 수만은 없고 또 참여 교회들이라 하여도 자신들의 예배서를 개개교회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예전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잃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예배 전통이 이런 예전적 형식과 내용 속에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변화를 거듭하는 오늘날 혹은 미래 사회의 교회를 위한 중요한 좌표로서의 전통은 여전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의 교회들 가운데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불변적 의존과 정규적인 예배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정체성과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나 그런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예전의 관심은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적 노력으로 확고한 의의를 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예배 전통에 대한 관심과 회복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해와 구체적인 적용은 각 교파나 진영에 따라 다른 결

파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단 동서방 혹은 신구교라는 큰 범주 간에만이 아니라 동일 진영 내에서도 다양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교회 간의 신학적 강조점 혹은 지역적, 민족적 특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에 대한 시각은 계속 견지되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동시대적 변용 노력도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올바른 예배 전통이 과연 무엇이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끊임없는 갱신과 회복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설사 예배라는 관습이 성서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논란성 명제를 차지하더라도 최소한 신앙의 선진들이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울여온 지혜를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특별히 상대적으로 볼 때 전통적 예배 요소와 거리가 있어왔던 개신교 진영에서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예배의 올바른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이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동방교회나 로마천주교회의 예전적 요소들이 대부분이고 이들 내용의 상당수는 개신교회의 신학적 바탕과 궤를 달리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신중한 분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 하에서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적 이상은 자칫 희석되거나 그나마 결과적으로 그들을 향한 건전한 도전도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인식 하에 개신교회가 늘 바라보고자 하는 초대 교회의 이상과 그것이 담고 있던 예배의 구조, 순서, 내용, 정신 등이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형적 모습들을 탐구하고 소개하는 데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나아가 그에 비추어 오늘의 주요 개신교회 예배들을 비평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그 바탕 위에서 나름대로의 예배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재구성된 하나의 제시란 첨단 정보화의 시대요, 문화적 다양성이 꽃을 피우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정황에 대한, 언제나 타당한 전범으로서의 제시가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변화와 적용과 개혁을 거듭해 가야할 개신교 예배의 당위 속에서 늘 들여다보아야 할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나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초대교회 주요 예배문서들의 이해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과연 어느 시기까지의 자료를 주요 관찰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인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대체로 3, 4세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3세기경에 이미 대체적인 예배의 내용이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이후 2세 동안 단편적 자료들의 재구성을 통해서가 아니면 정규적인 예배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4세기 기독교 국교화 이후의 시기는 예배학적 관점에서도 중세기의 부정적 요소들이 점차 개입되어 가고 있음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4세기 이후의 자료들은 비평과 검토를 통해 앞서의 문서들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기 위해 가장 먼저 신약성서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 A. 신약

#### 1. 말씀예배

신약성서의 곳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사건마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선포하는 일이 등장한다. 즉 성서를 읽고 그것을 강론하는, 소위 말씀예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회당예배 관습과 관련이 있다. 회당예배의 출현은 정확히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이 포로생활을 하게 된 B.C. 6세기경부터였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빌론에서의 포로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예배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민족적 생존을 지켜내는 중대한 바탕이었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특별히 기억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소리 내어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일들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익숙했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갱신되곤 하였다. 어디

든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성경과 사람만 있으면 되었다. 회당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축이었다. 성경 속에 담긴 그의 행위를 읽을 뿐만 아니라 시편 노래로 찬양하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말씀을 묵상하였다.<sup>1)</sup>

신약 속에서의 이런 흔적은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누가복음 4:16-28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배를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이사야서로부터 말씀을 봉독한 후 앉아서 설교를 하신다. 사도행전 13:15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 회당장이 바울과 동료들에게 설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유대주의로부터 개종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 이것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익숙한 예배의 모습이였다. 곧 이들은 회당으로부터 추방되었는데 2세기 중엽에는 회당 예배와 성찬이 혼합된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sup>2)</sup>

## 2. 성찬예배

역사의 진행에 따라 말씀예배와 함께 병합되어 점차 기독교 예배의 모습의 일부를 이룬 성찬의 출현과 그 실제적인 실행의 사례들은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성찬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정사와 성찬실행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예배의 역사에서 제정사는 그 해석에 따라 예배신학적 특성과 내용에 큰 차이를 가져온 주요 주제였다. 제정사가 후대 교회들이 중심부에 두었던 성찬의 핵심적 내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네 개의 제정사를 비롯해 몇 개의 간략한 성찬관련 기사를 제공한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부활 전 후에 있었던 식사에 관한 기록 모두를 포함하고

---

1) James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3r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152-3.

2) *Ibid.*, 153-154.

있다. 신약성경에서 성찬 제정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막 14: 22-25, 마 26:26-29, 고전 11:23-26, 눅 22:15-20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상호 매우 비슷하며 고린도전서와 누가복음의 기록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특히 누가의 기록은 식사를 전후하여 두 번의 잔이 등장한다. 이들 간의 이런 차이들은 당시 그들이 전해 받은 것을 서로 다른 공동체 내에서 낭송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본문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이런 차이들이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교회 의식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위가 엄격하게 준수될 것이 요구되었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결코 단순하고 우연한 것이기 보다는 신학적 강조점이나 특정 지향점을 가진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3)</sup> 실제로 Lietzman, Spitta, Lohmeyer 등은 초대교회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제나 정서의 성찬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사도행전 2:42에서와 같이 ‘떡을 뺨’과 같이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쁨의 교제가 있는 성찬이요 다른 하나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어둡고 침울한 주제의 성찬인데 이 가운데 초기의 것인 전자에서 나중에 후자의 정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이다.<sup>4)</sup> 결국 성찬의 보다 원형적인 모습은 중세와 같은 어둡고 침울한 주제와 정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경우 식사를 사이에 두고 다른 기록들과 달리 두 차례 포도주 잔이 나누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감사가 있는 식사관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가졌던 식사와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sup>5)</sup>

3) Soonwhan Kim, "Diversity and Unity in the Primitive Church's Worship" *Bible & Theology* Vol. 35 (2004): 311-335.

4) Paul Bradshaw,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51-52.

5) Soonwhan Kim, "Diversity and Unity in the Primitive Church's Worship"; 로렌스 스투키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

둘째로 바울과 누가의 기록 속에 나오는 중요 단어, “기념”(anamnesis)은 “이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다시금 예수님 자신이 임재하신 실재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이 말은 과거 중세와 같이 성찬을 희생제사로 보는 견해, 즉 ‘그의 희생을 실제처럼 반복, 재현하라’라는 뜻이기 보다는 ‘그의 십자가 사건과 그로인한 부활 및 함께 하심을 지금 다시 경험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성찬의 희생제사적 특성의 주장과는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제정사 속의 행위인데 Gregory Dix는 이것을 네 가지 행위로 집약한다. 즉 막 14장 22절에 나온 대로 떡에 대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니”다. 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다만 “떼어”가 없을 뿐이다. 이런 4중 행위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된다.(막 6:41; 눅 24:30; 행 27:35) 말하자면 이후 교회의 성찬식 구조인 “봉헌,” “성찬기도,” “분병,” “배찬”이라는 4중구조가 이미 성서 속에서 원시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신약은 1세기 성찬의 실행 모습들에 대해 매우 간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었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성찬]고 기록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26에서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성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7-12에서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졌던 성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강론[말씀예배]에 이어서 성찬이 나오고 있다.

## B. Didache<sup>7)</sup>

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3-59; Robert Cabie, *The Eucharist in the Church At Prayer Trans.* Matthew J. O'Connell, Vol 2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6), 8.

6) James White, 232-233.

Didache 내의 예배 관련 내용은 9, 10, 14장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9-10장은 아가페 잔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14장이 성찬식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내용을 별개로 보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성찬식의 내용이나 순서가 없는 것은 당시의 꺾박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먼저 9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배찬에 앞서서 행해진 기도라고 볼 수 있다.

[1] 먼저 성찬에 관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를 드리라. [2] 먼저 잔에 관하여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아들인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나이다.” [3] 썬 떡에 대해서 “이 부서진 떡이 산들에 흩어졌으나 모아져 하나가 되었듯이 세상의 모든 끝으로부터 당신의 천국으로 당신의 교회를 모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당신의 것이나이다.” [4]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 외에는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라. “거룩한 것을 새들에게 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sup>8)</sup>

이어서 14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그 내용은 성찬에 앞서서 고백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주님의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너의 희생물이 순수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고백한 후에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라. [2] 그의 이웃과 다툼이 있는 누구도 그가 화목할 때까지 너희의 희생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너희 중에 참여치 못하게 하라.

---

7) W. A. Jurgens(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1-6. 기록연대는 1세기말에서 2세기 초 혹은 말경의 문서로 봄. 그 내용 속에는 세례(7), 금식과 기도(8), 애잔과 성찬(9-10), 주일에 이들을 지킬 것(14)에 관해 다루고 있다.

8) 성물 자체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디다키의 내용으로부터 확인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식사가 그러하듯이 성찬이 ‘감사’의 사건이라는 것이다.<sup>9)</sup> 뿐만 아니라 디다키는 죄의 고백 등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성찬기도의 직전에 죄의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씀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예배의 서두에 이 순서를 갖게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C. I Apology<sup>10)</sup>

9) 성서에서와 유스티아누스의 글에는 예수께서 성찬에서 축사하신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쉽게 성서의 제정사만이 전부였을 것이라는 단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성찬식이 일어난 상황(context)은 유대의 식사전통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Mishnah의 의하면 Berakoth(blessings, 단수는 Berakah)에 관련된 장에서 식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포도주 잔과 썬 떡을 놓고 이렇게 말한다. “복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포도의 열매를 지으십니다...복되십니다...당신은 땅으로부터 떡을 내십니다.” 전체 예식의 마지막에 긴 기도인 the Birkat ha-mazon이 있다. 이는 마지막 포도주잔에 드려진다. 미쉬나가 완전한 문장을 주지는 않으나 후의 증거들로 보면 이렇다.

“복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온 세상을 선과, 은총, 친절과 공화로 먹이십니다. 복되십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들을 유지하십니다(sustain). 주 우리 하나님 당신께 바람직하고 좋고 넓은 땅과 언약과 토라, 생명과 음식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또 이후로도 찬양(bless)합니다. 주여 땅과 우리의 음식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Berakah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과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Berakah의 기도는 Tephillah, 즉 간구의 기도로 바뀐다. 지금까지 기도를 드린 하나님이 그 완성에 이르시도록 하는 기도이다. Cf. Robert Cabie(et al), 21-22.

10)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Philadelphia:

이 문서는 개략적인 예배의 윤곽을 보여주는 첫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봉독: 봉독자(reader)가 사도들의 기억(신약)과 선지자의 글(구약)이 시간이 허용하는 한까지 읽음/설교: 대표(president)가 강론(discourse)/공동기도: 세례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도되어 그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스스로들을 위해서, 세례 받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동기도/평화의 입맞춤: 기도가 마쳐진 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봉헌: 형제들을 인도하는(presiding) 사람[대표]에게 떡과 포도주가 드러짐/성찬기도: 대표자가 재량(즉흥성)에 따라 기도한 후, 사람들이 '아멘'함으로써 동의/배찬: 부제(deacons)라 부르는 사람들이 성별된 떡과 물 섞은 포도주의 일부를 각 사람에게 배찬

이 문서에 따르면 '시간이 허용하는 한'이란, 주일도 휴일이 아니었기 당시, 동이 터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배 안에 가능한 오랜 시간의 성경봉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1)</sup> 또한 이 문서에서 보듯이 '대표자'는 교역자임을 Ignatius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금 이른 115년에 안디옥 감독, Ignatius는

“적법하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성찬은 감독이나 혹은 그가 지정한 사람의 인도로 경축되는 것이다.……마치 그의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하는 한 명의 감독이 있듯이 단지 한 성찬에만 참여하도록-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육체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피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단 한잔에만, 그리고 한 제단에만 참여하도록 주의하라.”<sup>12)</sup>

---

Fortress Press, 1961), 8-9. 유스티아누스의 제 1 변증론 65장, 66장, 67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150년경에 다음과 같은 예배가 드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로렌스 홀 스투키, 91.

12) Robert Cabie, 14.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찬을 포함한 예배가 교역자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의 ‘입맞춤’은 곧 오늘날 순서 ‘화해’의 첫 증거이기도 하다. William Maxwell은 가난한 자를 위한 선물의 수집(collection)도 여기에서 있었을 것으로 본다.<sup>13)</sup> 본문에 나온 대로 ‘물과 포도주를 섞는 일’은 처음에는 실제적인 이유에서였지만 1세기 후의 Cyprian은 사람들의 일치(물)와 그리스도의 피(포도주)의 혼합이라는 신학적 설명을 부가하기도 하였다.<sup>14)</sup> 특히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스틴 마터의 Dialogue의 41장에 보면 성찬기도가 이미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통해 만유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 보냄을 나타낸다.<sup>15)</sup> 그 외에도 남은 것이 부제들에 의해서 불참자들에게 전달된다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적절한 양의 구제헌금을 드린다는 등의 기록이 발견된다.

#### D. Apostolic Tradition<sup>16)</sup>

히폴리투스는 그의 글 *Apostolic Tradition*에서 두 가지 특수한 상황, 즉 감독안수식과 세례식의 예배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I Apology*와 함께 적어도 예배(성찬이 있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히폴리투스의 성찬기도는 그 이후 성찬기도들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전의 것으로서 오늘날 여러 진영에서 복원,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기도문에는 후기 기도문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송(Sanctus)과 중보기도가 들어 있지 않다.<sup>17)</sup>

---

13) William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Oxford Univ. Press, 1965), 11-14.

14) James White, 235-6.

15) Bard Thompson, 6.

16) 이 문서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하나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번역본들에 기초한 것이다. Bard Thompson, 20-23.

17) 비록 사도전승에는 삼성송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iam Maxwell 같은 학자는 이미 이 시기에 삼성송이 존재하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A.D. 93년경 클레멘트 감독이 고린도에 보

## 1. 성찬식 I(감독안수와 함께)

평화의 나눔(the kiss of peace): 모든 이들이 신임감독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인사 / 봉헌(the offering): 집사들(the deacons)이 감독에게 봉헌물을 드림/성찬기도: 감독이 다른 사제들과 함께 드러진 봉헌물(떡과 포도주) 위에 손을 얹고 기도<sup>18)</sup>

감독: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감독님의 영혼(your spirit)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독: 여러분의 심장(hearts)을 높이 드십시오.

회중: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이 듭니다.

감독: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중: 옹고 마땅한 일입니다.

감독: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child),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마지막 때에 구주(the saviour)와 속량자(redeemer)와 당신의 뜻의 사자(the angel of your will)로 우리에게 보내셨나이다.<sup>19)</sup>

그는 당신과 분리될 수 없는 말씀이며, 그를 통하여 당신은 만유를 지으셨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셨나이다. 당신은 그를 하늘로부터 동정녀의 태로 보내시었고 태에 잉태되어 육체를 입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명백히 알려지셨고(manifested), 성령과 동정녀로부터 나셨나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께 거룩한 백성들을 바치려고 고난 받아야 할 때에 손을 펴시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나이다. 또한 그가 사망을 멸하고 악의 띠를 끊고, 지옥을 짓밟고,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규례를 세우시고, 부활을 증명하신 고난에 스스로 넘겨지셨을 때<sup>20)</sup> 그는 떡을 가지사, 당신께 감사

---

낸 편지를 든다. 비록 권면이긴 하나 그 내용 속에 2세기 후에 나타난 예전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William Maxwell, 8-9; Cf. 남호, 『초대기독교예배』(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125-26.

18) James White는 이것을 공동집례의 근거로 본다. Cf. James White, 237.

19) 후기 다른 문서들에 따르면 위 감사의 낭송 이후 여기에 사 6:3, 계 4:8에 기초한 삼성송(Sanctus)가 이어진다.

20) 여기까지는 감사기도에 해당이 되나 후기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감

## 20 • 신학과 실천(Theology and Praxis)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와 같이 또한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신께 떡과 잔을 드리며 또 우리를 당신 앞에 서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여기셨기에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sup>21)</sup>

또한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봉헌물 위에 보내시어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성물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강화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참여토록 하시며,<sup>22)</sup> 우리가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가 당신께 있어지기를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멘.<sup>23)</sup>

기름(oil)의 봉헌: 만약 누가 기름을 드리면, 떡과 포도주를 위해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를 드리나 한 마디 한 마디 다 동일하지는 않음.

감독: 오 하나님, 이 기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부으셨던 그것으로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듯이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소서. (영광과 존귀가 당신께 있어지기를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멘)

---

사의 시작부분에 서도(preface)가 생략되어 있다. 서방교회의 경우 이것은 절기나 행사 등에 따라 다른 주제를 반영하나 현재 동방교회에서와 일부 개신교예전에서는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James White, 239.

21) 기념(anamnesis)

22) 성령초빙(epiclesis) 부분. 어떤 예전들은 성물의 변화를 구하는 성령초빙을 담고 있기도 하다.

23) 마감송영(Closing Doxology)

치즈와 올리브의 봉헌: 마찬가지로, 만약 누가 치즈와 올리브를 드리면, 다음과 같이 기도

감독: 응고된 이 우유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당신의 사랑 속에 응고되게 하소서, 이 올리브의 열매가 당신의 달콤함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는 당신 안에 희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로부터 부으시는 당신의 풍성함의 모범이나이다. (영광과 존귀가 당신께 있어지기를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구하나이다.)

## 2. 히폴리투스의 성찬 II(세례식과 함께):

봉헌: 집사들에 의해서 감독에게 봉헌이 드려짐/감사기도<sup>24)</sup>: 1) 떡 위에 2) 포도주 위에(물과 섞인 듯) 3) 함께 섞인 우유와 꿀 위에<sup>25)</sup> 4) 물 위에<sup>26)</sup>/감독의 설명: 감독이 받는 자들에게 이들에 대해 설명/분명: 감독이 떡을 떼 뒤 그 조각을 주면서, 감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떡입니다.” 수례자: 아멘/분잔: 사제들(presbyters)이 충분치 않으면 부제들이 잔들을 들고 있을 수 있음. 처음에 물잔을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우유잔을, 세 번째는 포도주잔을, 수례자는 각각의 것을 세 번씩 맛봄.[각 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수례자: “아멘” 부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례자: 아멘] 부제: “성령과 거룩한 교회 안에서” [수례자: “아멘”]

## E. Apostolic Constitutions<sup>27)</sup>

- 24) eucharitize. 내용은 없다.
- 25) 조상들에게 행해진 약속의 성취를 상징한다. [감독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주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되며 마음의 쓴 것이 그의[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말씀으로 인해 달콤하게 된다는 것을 기도한다.
- 26) 씻음의 상징이다.
- 27) 이 문서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375-38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Paul Bradshaw, 93; 본문은 윌리엄 William Maxwell, 27-34, R.C.D. Jasper and G.J.Cumming, 100-113, 남

현존하는 최초의 완성된 예배식순으로 사도헌장 제 3권에 나오며 약 380년경의 문서로 추정된다. 클레멘타인의 예전이라고 알려진 이 자료가 실제 예전이기보다는 개인의 편집일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기는 하나 당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실제 예배를 나타낸 것으로서 모든 동방 예전의 원형이라고도 한다.<sup>28)</sup>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씀예전]

기도: 연도(추정)/성서정과: 율법서, 역사서, 율기와 지혜서, 예언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등의 순<sup>29)</sup>/설교<sup>30)</sup>/세례예비자의 해산/[다락방예전]<sup>31)</sup>/부제의 연도와 감독의 마감기도<sup>32)</sup>/인사와 응답:

부제: 참여합니다.

감독: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

호, 『초대기독교예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106-120 등에 수록되어 있다.

- 28) 사도헌장의 기도는 아마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James White, 239. 디다케나 저스틴의 자유로운 기도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고정기도가 됨.
- 29) 제2권에 따르면, 들씩 읽히지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시편을 부르고 사람들이 각 구절의 끝에 응답으로 노래한다. 복음서는 부제나 사제가 읽도록 하고 복음서가 읽히질 때는 모두 일어서도록 하였다.
- 30) 제8권에 의하면, 감독은 설교 전에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이에 모두가 “또한 당신의 영혼과도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라고 한다.
- 31) 말씀예전이 끝나고 다락방 예전이 시작되면 부제는 참여한 사람들의 위계를 살펴 보면서 그들이 적절한 위치와 질서로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따로 서있게 하였다.
- 32) 기도의 내용은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a. 세상의 평화와 복을 위해 b.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위해 c. 교구와 모든 감독들과, 사제와 교역자들, 권세자들, 이 땅의 소산, 병든 자, 옥에 갇히거나 유배중인 자, 아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감독이 기도함으로 연도를 마치고 평화의 나눔이 있다.

됩니다.

사람들: 또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제: (모두를 향하여)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교직자들은 감독에게 인사하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인사 하게 한다.

봉헌33)/성찬기도34)

감독: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람들: 당신의 영혼과도 함께 하시길.

감독: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드십시오.

사람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듭니다(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감독: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께: 이것이 적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성찬기도)<sup>35)</sup>

감독: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고 올바른 일입니다...(이하 ...표는 기도 중략)...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천사장, 좌품천사(thrones), 능품천사(virtues, powers), 주품천사(dominions), 권품천사(principalities), 그리고 영원한 군대에 의해 예배드려 집니다. 체루빔(cherubim)과 여섯 날개를 가지

- 
- 33) 부제가 감독과 사제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며, 감독과 사제들의 일종의 씻음의식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혼들의 순수를 상징한다. 수석 부제가 ‘성찬상 담두르기’ ‘신자가 아닌 자’ ‘누구에게 거스린 자’ ‘위선 자’는 남아 있도록...모든 이에게 드러질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똑바로 설 것을 명함. 부제들이 성찬상(Holy Table)에 성찬성물을 드림. 집례자가 침묵기도 후 ‘장엄한 예복’ 입기를 한 뒤 사람들을 향해 성찬상에 선다. 이마에 십자가 표.
  - 34) 성찬기도 중, 서도(preface)가 상당히 길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창조,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 35) 이하 제 8권 12장 36-37절.

고 둘은 그들의 발을 덮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는 세라핌(seraphim)이 천천의 천사장과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쉼 없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다함께: (전체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하늘과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sup>36)</sup>

감독: (잠시 침묵 후) 참으로 당신은 거룩하시며, 부한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특히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이하 중략)...따라서 그가[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뜻)을 행합니다.

(제정사)<sup>37)</sup>

주께서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그가 거룩하고 흠 없는 손으로 떡을 드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보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신비다.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부서지는 나의 몸이나라.”

마찬가지로 주께서 포도주와 물을 섞으시고 성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나의 죽음을 선포 할 것이다.”

(기념, anamnesis)<sup>38)</sup>

주님의 수난과 죽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각자의 업적에 따라 보상해주실 장래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당신께, 명령을 따라, 이 떡과 이 잔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사장들로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가치 있는 자들로 판단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당

36) 이 부분은 Clement of Rome의 서신에도 기도의 일부분으로 34장 5-8절에 들어가 있다. Cf. 남호, 126.

37) 이하 제 8권 12장 36-37절.

38) 이하 제 8권 12장 38-39절.

신께 바친 이 예물을 자비롭게 살피시고,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초빙, epiclesis)<sup>39)</sup>

이 희생제물에 ‘주님 예수의 고난의 증인’인 성령을 보내사,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사람들이 경건함이 더 강해지고, 죄의 용서를 얻으며, 악마와 그의 속임에서 벗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애에 어울리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옵소서.

(감독의 연도)

주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사시고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펼쳐 있는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소동과 동요로부터)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모든 감독들을 위해...당신에게 바치는 무가치한 나 자신을 위해...모든 사제들과 부제들과 그리고 모든 교직자들을 위해...황제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우리를 평화롭게 하시어 우리가 모든 삶을 조용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영광돌리게...거룩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순결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기도하며...박해하는 사람들과 바깥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기도합니다...우리가 또한 온화한 기후와 풍성한 추수를 위해...부족함 없이 당신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게 하시고...당신을 끝없이 찬양하게 하소서...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모으소서.

당신께 모든 영광과 예배, 감사, 명예, 숭배가 성령 안에서, 지금 그리고 항상. 그리고 만년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끝없이 있기를 빕니다.

사람들: 아멘.

배찬

감독: 그 이름이 장엄한 위대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신,’ 당신의 거룩한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

39) 이하 제 8권 12장 39절.

## 26 · 신학과 실천(Theology and Praxis)

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하신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을 돌리소서. 우리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여기 참여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치 없는 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도움, 구원자, 그리고 방어자가 되옵소서.  
영광과 명예와 찬양, 영광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사람들: 아멘.

부제: 주목하십시오.

감독: (사람들이 보도록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크게)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들: 오직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배찬)

감독: (떡을 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수찬자: 아멘.

부제: (잔을 들고 그것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잔입니다.

수찬자: 아멘.

시편찬양/성찬후 기도: 부제가 '성찬 후' 기도에 초청한 후 감독이 '성찬 후 기도'/해산:

부제: 평화 속에 가시오.

## III. 초대교회 주요 예배문서들의 현대 예배와의 관련

### A. 분석과 비교 평가

성서에 기록된 예배의 모습들은 후기 문서 속에 나타난 것처럼 반드시 말씀예배와 성찬식이 함께 시행된 구조만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병치로 구형되어갔다. 말씀을 통해 인지적 전달, 성찬을 통해 행위와 경험적 전달의 구조(혹 세례가 있을 때는 성찬에 앞서 시행)를 띠고 있다. 또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요소나 제스처와 관련하여 상징적 기능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면에서는 먼저 교역자의 인도 속에서 교역자 외의 봉독자에 의해 성서가 충분히 봉독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읽기에 인식했던 점에 비추어 중요한 기록이다. 이어 주집례자인 교역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다. 설교가 마쳐진 후에는 신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중보성 기도가 드러졌다. 이 기도는 교직자의 기도에만 중보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평신도들의 중보성 기도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또 기도가 마쳐진 다음 실제적으로 성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서로서 서로 간에 입맞춤을 통해 평화를 나누는 의식 후에 신자들이 성찬에 사용될 떡과 물섬은 포도주를 드렸다. 이어서 주집례자가 혹은 주집례자와 부집례자들이 공동 집례하는 가운데 후기 예배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찬기도가 드러졌다. 성찬기도가 마쳐지면 모든 신자들이 다같이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여기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가 있었다.

특히 Apostolic Tradition과 Apostolic Constitution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성찬기도의 내용을 보면 a. 인사의 교환, b. 서도(preface) c.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속량자, 사자로 보내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d. 삼성송(sanctus) e.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선언, f. 기념, d. 제정사, e. 성령초빙, f. 영광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기도 속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나 성령초빙시 화체설이나 희생제사를 연상시키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보듯이 감사와 찬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중세교회와 달리 기도가 재량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성찬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신

양의 요리를 재확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되는 셈이다.

## B. 현대 개신교 예배와의 관련<sup>40)</sup>

위에서 살펴본 초대교회의 예배문서들의 내용은 현대 주요 개신교회의 예배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9년 예배서 개혁을 단행한 성공회의 예배를 보면 그 순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입례(찬송가, 시편노래, 혹은 성가대 찬양이 동반됨)/성삼위와 하나님나라 축복(집례자와 회중의 교창)/참회예식/키리에(자비의 연도)/대영광송/모음기도(집례자와 회중의 교창)/말씀봉독(구약, 서신서 및 복음서 등을 읽으면서 그 사이로 시편 등이 불림)/설교/니케아신경 낭송/사람들의 기도(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중보기도)/평화/성찬기도/마음을 드높이/삼성송/제정사/기념/성령초빙/송영/주기도문/분병/수찬/성찬 후 기도/파송

이 문서를 4세기까지의 초기 예배문서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말씀예전 부분에서는 참회예식<sup>41)</sup>, 성서정과<sup>42)</sup>, 설교, 사람들의

---

40) 아래의 성공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등의 자료는 각각 Rober Webber(ed), *The Renewal of Sunday Worship*, vol 3.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Tennessee: StarSong publishing group, 1993), 154-160 참조; *Lutheran Book of Worship*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2), 56-76 참조;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Nashville, Tennesse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92), 16-39 참조; *Book of Common Worship*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34-83 참조.

41) 참회예식은 간단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널리 정형화되어 있는 “생각과, 말, 행동, 우리가 행한 것과 행치 않은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사오니...”로 이어지는 양식은 11세기이해 클루니의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사용하던 고백문이 비오 5세의 『로마 미사 전례서』에 들어간 후 널리 개신교에서도 사용되게 되고 있다. 이흥기, 『미사

기도, 평화<sup>43)</sup> 등이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후대의 로마교회에서 나타난 미사 첫 순서인 입례 양식이 사용하고 있고<sup>44)</sup>, 키리에<sup>45)</sup>, 대영광송<sup>46)</sup>, 모음기도<sup>47)</sup>, 신경낭송<sup>48)</sup> 등이 첨가되었다. 성찬예전 부분에서는 인사와 수르숨 코르다<sup>49)</sup>, 삼성송<sup>50)</sup>, 기

전례』(왜관: 분도출판사, 1997), 110.

- 42) 예배 안에서 성경봉독을 여러 군데에서 발췌하여 봉독하는 순서이며 교회력상의 절기를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 43) 평화(peace)는 그 성격이나 위치로 보아 타 예식서들의 '고백과 용서' 혹은 '참회예식' 등과 같은 기능의 순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유스티나누스의 예배순서에서 '평화의 입맞춤'이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 44)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Cf. Bard Thompson, 54-55.
- 45) 키리에에는 7세기 후반 갈리아 예배의 첫 부분에서 두 차례, 즉 하나는 말씀 예배의 첫 부분에서 인사 후, 다른 하나는 설교 후 부제의 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그레고리 대제보다도 약 1세기 전에 존재한 예배에서도 말씀예배에서는 입례가 있는 뒤 곧 이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트렌트 예식에서는 키리에가 입례 후 곧 이어 성가대에 의해 9번 불러진다. 루터는 그이 독일미사(1526)에서 처음부분의 입례(혹은 독일찬송) 후 키리에를 넣었다. William Maxwell, 49-50, 56, 69, 69.
- 46) 7세기 후반의 갈리아 예전에서는 키리에 다음에 Benedictus가 이어졌는데 곧 이 Benedictus는 간혹 Gloria in Exelsis(대영광송)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트렌트 예전(1570)에서는 입례송, 키리에, 교직자들의 입례에 이어 사제들이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참회로 이루어진 개인적 준비가 끝난 후 나타난다. Maxwell, 50, 69.
- 47) 갈리아 예전에 보면, Benedictus 혹은 Gloria 다음에 "그날의 기도"의 자리에 collect가 들어 있었다.
- 48) 신경은 이미 5세기 경 비잔틴 예전에 소개되고 있다. 후에 사룸(Sarum) 예식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트렌트 예전(니케아신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루터나 츠빙글리의 경우는 이것을 사도신경(Apostle's Creed)으로 바꾸었다. 다만 칼빈과 존 녹스는 말씀부분에서 아닌 성찬 중에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다. William Maxwell, 53, 70, 79, 84, 114-15, 123.
- 49) 수르숨 코르다(Sursum Corda)는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들과 천국의 찬미와 한 목소리를 내는 행위이다.
- 50) 이것은 전통적으로 삼성송(혹은 쌍투스, Sanctus)이라고 부르는 요

념, 성령초빙, 송영 등이 영향을 받았지만 삼성송의 경우 베네딕투스<sup>51)</sup>가 뒤에 추가되어 있다. 그 외에 주기도문<sup>52)</sup> 등이 첨가되어 있다. 성찬기도는 사도전송과 유사하지만 좀 더 다듬어진 모습을 띠고 있고 성령초빙 부분에서는 제사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루터교회의 경우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과 구조이면서 다만 16세기의 역사적인 루터교회의 예배순서를 많이 따르고 있다. 루터교회 최대교단인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의 예식서인 *Lutheran Book of Worship*(이후 LBW)의 예배순서에 보면,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성호를 그을 수도 있다)/죄의 고백과 용서(이 세 순서는 입례에 앞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음)/입례 찬송/인사/키리에<sup>53)</sup>/영광송/오늘의 기도(인사로 시작해서)/구약봉독/시편봉독/서신서봉독/찬양/복음서봉독/찬송/설교/니케아신조/중보기도/평화의 나눔(배찬 전 주기도 후에 들어갈 수도 있음)/인사(성찬을 시작하면서)/봉헌(이때 찬송가가 동반되며 성찬상도 준비함)/성찬기도(마음을 드높이, 서문경, 삼성창, 제정사, 기념, 성령초빙 등이 포함됨)/수찬/찬송/성찬후기도/아론의 축도/해산

---

소로서 이사야서 6:3에서 유래한 것이다. 개역성경의 '여호와'를 여가서는 표준역에 따라 '하나님'으로 바꿨다.

51) 막 11:10과 요 12:13 등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에 대해 외치는 찬미이다.

52) 레이-메르메는 주기도문이 4세기에 예배 속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레이-메르메, 『성사 안에 드러난 신앙』 김인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252-256 참조. 5, 6세기에는 성찬기도를 하고 분명한 뒤 집례자가 말하였다. 7세기 후반의 갈리아 예식서에서도 발견이 된다. protocol(소개하는 말)과 embolism(주기도문의 끝말, Libera nos a malo,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기초한 간결한 기도)이 첨가되었다. Sarum 예식서에서도 성찬기도와 분명이 끝난 후 이것이 들어갔다. Maxwell, 49-50, 53-54, 57.

53) 사회자와 회중이 교창

이 예배의 말씀부분에는 성공회와 같이 죄의 고백과 용서[참회예식], 성서정과, 설교, 중보기도[사람들의 기도], 평화의 나눔[평화의 인사] 등이 초대교회 예배문서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의 예배시작, 키리에, 영광송, 오늘의 기도, 신경낭송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고 성찬부분에는 배찬 후에 선택적으로 시므온의 노래<sup>54)</sup>, 이어서 아론의 축도가 선택적으로 들어가 있다.

전통적으로 설교의 비중이 컸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도 예전적인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배서들을 발간하여 예전적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감리교회의 예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임/인사와 찬송/개회기도/조명기도/구약봉독/시편송/서신서/찬송 혹은 알렐루야/복음서봉독/설교/신경낭송/중보기도/성찬초대/죄의 고백과 용서/평화의 교환/봉헌/성찬성물을 취함/성찬기도/주기도/분병/배찬/파송

이 예배서의 말씀예전을 보면 모음기도와 동일한 기능의 개회기도, 성서정과, 설교, 중보기도 등이 고전문서와 일치하고 있고 모임<sup>55)</sup>, 조명기도<sup>56)</sup>, 선택적으로나마 알렐루야<sup>57)</sup> 등이 추가되었다. 성찬부분에서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다른 예배서와 달리 성찬 시작 직후에 위치하여 있고 ‘주기도’가 첨가되어 있다.

미국장로교파 최대 교단인 PCUSA(Presbyterian Church in USA)는 여타 장로교회보다 훨씬 예전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54) 눅 2:20-32.

55) 일종의 입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56) 이것은 원래 칼빈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뷰서의 예식에서 발견되고 또 칼빈의 예식서들 속에서 줄곧 발견된다. Maxwell, 104, 114.

57) 이것은 그레고리 대제 보다 1세기 전의 예식에서서 복음서봉독 다음에 나타난다. 또 사롭예식서에서는 복음서 앞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처음에는 부활절에만 사용되던 것이 이후로 점차 일반화되었다. 종교개혁시기에는 마틴 뷰서의 예식에서도 나타난다. Maxwell, 53, 56, 58, 93.

그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배에 부름/그날의 기도 혹은 개회기도/고백과 용서/[평화]/찬송(소창, 시편, 찬송, 영가 등)/조명기도/제1봉독/시편/제2봉독/성가대 찬양, 시편, 소창 혹은 영가 등/복음서봉독/설교/초청(결단의)/찬송, 소창, 시편, 영가 등/신앙의 확인[니케아신경 혹은 사도신경으로. 성찬식이 있을 때는 니케아신경 사용](세례식, 세례언약갱신예식, 신입교인 환영 등의 목회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식들 안에 사도신경이 들어 있으므로 생략. 이 자리에 세례식)/사람들의 기도/평화(서두에서 안할 경우)/봉헌/성찬초대/대감사/주기도/분병/배찬/찬송, 영가, 소창, 시편 등/위임과 축도

이 예배의 말씀부분에도 4세기 경까지의 예배문서들 속에서 발견되는 고백과 용서, 성서정과, 설교, 사람들의 기도[중보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배의 부름은 예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성찬식 인사 형식<sup>58)</sup>을 확장한 것 혹은 로마 미사의 첫 부분과 유사한 모양이다. 그날의 기도는 후기 문서의 모음기도에서, 조명기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칼빈과 뷰서의 용례로부터 따른 것이다. 그 외에 신앙의 확인[신경낭송]은 후대에, 초청부분 등은 현대에 출현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특징으로는 고백과 용서가 예배의 서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sup>59)</sup> 성찬부분에서는 주기도가 포함된 것이 고전문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성찬기도의 내용은 Apostolic Tradition이나 Apostolic Constitution 등의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 다만 삼성송에 Benedictus가 첨가되어 있다든지 성령초빙 직전에 환호사(acclamations)<sup>60)</sup>가 포함되어

58) 히폴리투스의 Apostolic Tradition 참조.

59) 칼빈은 참회기도를 그의 예식서들 속에서 하나는 제일 처음에 (1537년 스트라스부르크 예전), 그리고 나머지(1540년 스트라스부르크, 1542년 제네바)에서는 서두에 위치시켰다. Maxwell, 114.

60) 기도 중에 한 부분에서 회중이 외치는 언사로서 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이다.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C. 현대 개신교회를 위한 예배 모델

결국 현대교회의 예배들은 초대교회 보다 다소 후기이거나 종교개혁기의 예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 예배 문서들의 내용, 순서, 예배신학을 상당부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통에 대한 회귀 노력은 오늘날 자칫 전통의 유산으로부터 궤도를 이탈하는 예배 실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 되기도 하면서 자칫하면 역으로 교회의 순수한 전통이 아닌, 특정한 신학적 이유에 기인하여 덧붙여진 것들에 대해서마저도 비평적 수용 없이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이루어진 검토에 기초하여 극히 부분적 시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예배 모델을 제시해 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다만 다음의 제시는 오늘날 에큐메니칼 모델을 갖추고 있는 미국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기존예배를 많이 참고로 하여 비평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말씀부분은 대부분 각주로 처리하고 특히 성찬식 부분만은 구체적 본문과 지시문들을 담았다.

#### [모임(Gathering)]

##### 예배로 부름(Call to worship)<sup>61)</sup>

61) 감리교회의 예배의 실질적인 시작부분 명칭이 ‘인사’라하면 장로교회는 ‘예배로 부름(call to worship)’인 셈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시며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성경의 말씀에서 발췌된 구절을 말하거나 부른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장로교회의 경우 예전적 인사(룻기 2:4 참조) 외에 여기서 사용하는 예배의 부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찌어다.”(살후 3:18)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고후 13:13) 혹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 등(10의 선택 자료)을 집례자가 말할 수 있다. 이어서 집례자가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회중이 “주

34 • 신학과 실천(Theology and Praxis)

그날의 기도 혹은 개회기도(Prayer of the Day or Opening Prayer)<sup>62)</sup>

찬송, 시편가 및 영가(Hymn of Praise, Psalm, or Spiritual)

고백과 용서(Confession and Pardon)<sup>63)</sup>

평화(The Peace)<sup>64)</sup>

소창, 시편, 찬송, 영가 등(Canticle, Psalm, Hymn, or Spiritual)<sup>65)</sup>

[말씀(The Word)]

조명기도(Prayer for Illumination)<sup>66)</sup>

님이여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말한다.

62) 감리교회의 개회기도와 같은 성격이다.

63) ‘고백과 용서’의 내용은 먼저 인도자가 요한1서 1장 8절과 9절을 봉독하고 난 뒤,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라고 정한 뒤, 다같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당신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이상 장로교회 예식서)

모두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감리교회 예식서)

(키리에를 추가 할 수 있다)(장로교회 예식서)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실향 속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장로교 예식서)

6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 후, 사람들과의 평화, 화해를 나누는 순서이다.

65) 감리교회의 ‘찬미의 행위’와 같은 성격이다. 예전적인 예배 안에서 이것의 위치는 키리에에 다음이었다. 찬미는 주로 대영광송(Gloria in Excelsis)이나 혹은 소영광송(Gloria Patri)을 사용한다.

66)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는 조명기도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여시어 성경이 읽혀지고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듣게 하소서!”

제1봉독(First Reading)<sup>67)</sup>

시편(Psalm)<sup>68)</sup>

제2봉독(Second Reading)

성가대찬양, 찬송, 시편, 소창, 영가 등(Anthem, Hymn, Psalm, or Spiritual)<sup>69)</sup>

복음서봉독(Gospel Reading)

설교(Sermon)<sup>70)</sup>

초청(Invitation)<sup>71)</sup>

찬송, 소창, 시편, 영가 등(Hymn, Canticle, Psalm, or Spiritual)

신앙의 확인(Affirmation of Faith)<sup>72)</sup>

[Pastoral Rite of the Church(교회의 각종 목회 예식)]<sup>73)</sup>

사람들의 기도(Prayers of the People)<sup>74)</sup>

[The Peace(평화)]<sup>75)</sup>

- 67) 각각의 봉독 후에는 보통 초기문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히려 “아멘”으로 답하여도 무방하다.
- 68) 그날 해당하는 시편을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하는 것도 좋다.
- 69) 이곳에서 성가대 찬양이 드러질 수 있다.
- 70) 세 본문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중 복음서가 바탕이다. 그러나 세 본문을 봉독은 하되 한 주에 한 본문을 선택, 설교할 수 있다.
- 71)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등의 예배서에는 없는 순서로서 생략될 수 있다. 그 내용은 참가자들 가운데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원하는 사람을 그 결단으로 초청하는 순서다.
- 72) 보통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한다.
- 73) 일종의 말씀에 대한 응답 영역이다. 결혼, 안수, 임직, 파송 등이 들어갈 수 있다.
- 74) 교역자나 평신도 누구든지 기도를 인도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성경의 디모데전서 2:1-2, 고린도후서 1:11, 에베소서 6장 18-19 등과 95년경 클레멘트의 서신에서, 4세기 말의 에게리아의 일기에서 발견되는 세상을 향한 중보성 기도이다. Cf. 이흥기, 184-186. 장로교회 예배에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a. 보편적 교회, b. 세계와 우리나라, c. 권세자들, d. 공동체, e.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f.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 75) 성찬식이 없을 때는 봉헌, 감사기도, 주기도, 찬송, 위임과 축도로 마친다.

[성찬(the Eucharist) 및 파송]<sup>76)</sup>

*평화의 교환이 끝난 뒤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곧 성찬식으로 이어진다.*

**봉헌**

목사: 용서받고 화목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로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기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sup>77)</sup>

*곧 바로 찬양대의 찬양이나 기타 적절한 음악이 연주되면서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시작한다. 행진하여 성찬성물을 성찬상에 드리는 경우에는 헌금을 수합한 위원들과 함께 행진하여 나와 집례자에게 드린다. 성찬성물이 배열되어 있을 때에는 헌금 수집함만 받아 성찬상에 놓는다.*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성찬식초대**

---

76) 미국 PCUSA(미국장로교회)의 예배서와 UMC(미연합장로교회)의 예식서를 참조하여 여러 옵션 중 특정의 본문들을 필자의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고전적 자료들(저스틴의 변증론, 사도전승, 사도원장 등)에 비추어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77) 혹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b).”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b)”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집례목사는 성찬상을 앞에 두고 회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한다.

목사: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께서 그의 제자들과 상에 앉으셨을 때 떡을 드셔서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준비한 잔치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sup>78)</sup>

## 대감사

*집례자는 다같이 일어설 것을 청한다.*

목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감독님의 영혼(your spirit)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 여러분의 심장(hearts)을 높이 드십시오.

회중: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이 듭니다.

목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중: 옳고 마땅한 일입니다.

목사: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child),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마지막 때에 구주(the

---

78) 혹은 다음과 같이 초청의 말을 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8-9)”라고 하셨고 또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고 말씀하셨습니다.

saviour)와 속량자(redeemer)와 당신의 뜻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나이다.

*사람들이 노래나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중: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지여,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하나이다.<sup>79)</sup>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sup>80)</sup>

그는 당신과 분리될 수 없는 말씀이며, 그를 통하여 당신은 만유를 지으셨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셨나이다. 당신은 그를 하늘로부터 동정녀의 태로 보내시었고 태에 잉태되어 육체를 입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명백히 알려지셨고, 성령과 동정녀로부터 나셨나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께 거룩한 백성들을 바치려고 고난 받아야 할 때에 손을 펴시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나이다. 또한 그가 사망을 멸하고 악의 띠를 끊고, 지옥을 짓밟고,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규례를 세우시고, 부활을 증명하신 고난에 스스로 넘겨지셨을 때

그는 떡을 가지사, 당신께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와 같이 또한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신께 떡과 잔을 드리며 또 우리를 당신 앞에 서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여기셨기에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봉헌물 위에 보내시어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성물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강화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참

---

79) 이사야 6장 3절에 기초한 삼성송(Sanctus).

80) 시 118:26절; 마 21:9. 이중 괄호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여도록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가 당신께 있어지기를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멘.<sup>81)</sup>

### 주기도<sup>82)</sup>

목사가 회중에게 주기도문을 제안한다.

목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합니다.

목사와 회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앉는다.

### 분명

목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동작으로 떡을 떼며 말한다.<sup>83)</sup>

- 81) 이상 대감사는 *Apostolic Tradition*의 기도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기도문 안의 굵은 글씨와 지시문은 *Apostolic Constitution*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82) II장에 나오는 고전문서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레이-메르메는 주기도문이 4세기 예배 속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것은 이후에 널리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학계에서도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라고 한다. Cf. 레이-메르메, 252-256; 김세윤, 『주기도문강해』 서울: 두란노, 2000.

목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어서 목사는 잔에 포도주를 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은 채 말한다.*

목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배찬

### 초대

*떡과 포도주를 든 채,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배찬

*다음 떡과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sup>83)</sup> 사람들이 성찬*

- 
- 83) 상징행위를 잘 볼 수 있도록 Apostolic Tradition은 “주목하십시오.”라고 환기시킨다. 한 덩어리의 떡을 어깨 높이로 들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뒤 자른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몸이 부서짐을 상징한다.
- 84) 미국 장로교회(PCUSA)의 배찬 순서와 달리 역사적으로 배찬의 순서는 집례자가 회중보다 먼저였다. 성찬이 죄로부터 씻는 수단이기 때문에 집례자들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해 관료주의적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로렌스 스투키는 성찬이 잔치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기에 손님들을 먼저 대접한

을 받기 위해 성찬상 주변에 모일 수도 있다. 혹은 배찬 위원들에게로 나아갈 수도 있다. 혹은 성찬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앞으로 나와서 받을 경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청한다. 떡을 주면서 말한다.

배찬위원: 형제/자매님을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sup>85)</sup>

수찬자: 아멘

컵을 주면서 말한다.

배찬위원: 형제/자매님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수찬자: 아멘<sup>86)</sup>

### 배찬 후 기도

목사: 사랑의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드리며 살아가도록 또한 일하도록 성령의 권능 속에 우리를 보내소서.

회중: 아멘

찬송

축도

---

후 주인(집례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신교 성찬의 특성상 유념해 볼 일이다. 로렌스 홀 스투키, 168-169.

85) 여기에서 히폴리투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떡입니다”라고 하였고 떡을 먼저 받게 하였다. 받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하였다.

86) 만일 앞서서 받을 경우 배찬송을 함께 혹은 찬양대가 부르고 집례자는 제정사를 낭송해 줄 수 있다. 배찬 찬송은 현재 통일찬송가 안에서는 성찬의 분위기를 부활하신 주에 초점을 맞춘 284장 혹은 285장 등을 부르는 것이 좋다. 4세기말의 사도헌장에 의하면 배찬 중에는 기쁨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시편 34편이 불려졌다.

## V. 나오는 말

본 논문은 현대교회 예배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을 위해 신약 성서로부터 3,4세기까지의 역사적 예배문서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것은 우선 다른 시대와 그 자료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전면 부정하여서가 아니고 당시의 시대상 예배행위가 지니는 중요성 때문이다. 교역자나 신자 모두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적어도 신앙지도나 삶에 있어서 실제 예배 자체는 지금의 문서나 관념적 교육을 통한 방법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시대 정통 교회들의 신학과 신앙의 순수성, 그로인한 일치는 소위 고전적 에큐메니칼 시대라 일컬을 만큼 객관적 신뢰를 보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개신교 예배는 앞으로도 시대의 상황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예배도 그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변화라는 것이 전통의 회복이든 동시대적 적응이든 어디까지나 성서라는 텍스트와 통시적 기독교 역사와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에 더더욱 큰 폭으로 경험될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배의 개혁 속에서도 초기 교회들의 예배전통과 유산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 재평가 및 채용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세윤. 『주기도문강해』 서울: 두란노, 2000.
- \* 남호, 『초대기독교예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 \* 레이-메르메, 『성사 안에 드러난 신앙』 김인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 \* 스투키, 로렌스 홀.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 이흥기, 『미사전례』 왜관: 분도출판사, 1997.
- \* *Book of Common Worship*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 Bradshaw, Paul.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 Cabie, Robert. *The Eucharist in the Church At Prayer*, Trans. Matthew J. O'Connell. Vol 2.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6.
- \* Jurgens, W.A.(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 \* Kim, Soonwhan. "Diversity and Unity in the Primitive Church's Worship" *Bible & Theology* Vol. 35 (2004): 311-335.
- \* *Lutheran Book of Worship*,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2.
- \* Maxwell, William.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Oxford Univ. Press, 1965.
- \* Thomp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1.
- \*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Nashville, Tennesse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92.
- \* Webber, Rober(ed), *The Renewal of Sunday Worship*, vol 3.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Tennessee: StarSong publishing group, 1993.
- \* White, James.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3r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 ■ 초 록 ■

세계 주요 교회들 상당수가 오랜 전통의 예배 형식이나 내용 등을 새롭게 조명하고 형식상 자유로웠던 종전의 예배들에 대해 예전적 특성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비록 절대 다수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설혹 참여하더라도 개교회의 자율성을 넘어 의무적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예전성에 대한 관심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심적 장이라 할 수 있는 예배가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거치면서 꽃피운 전통의 축적 속에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들여다보아야 할 일관된 예배의 원리와 본질들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런 예배 전통에 대한 관심과 회복이 각 교파별 예배서의 개정 속에 구체적 결과로 나타났고 또 그것들이 상당부분 서로 공통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연 이들 중 어떤 것이 항구적이고 올바르며 또 개신교적 이상에 부합하느냐의 질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히 상대적으로 오랜 예배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약 500년의 독자적 역사를 지내온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전통의 회복을 위해 당장 시야에 들어오는 동방교회나 로마천주교회의 예전적 요소들을 마치 그것의 진수인양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만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자칫 예배를 통한 개신교회의 이상은 희석되고 말 것이며 더구나 타 진영을 향한 개신교회의 건전한 도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초대교회, 특히 3,4세기까지의 주요 예배문서들을 탐구하여 소개하였다. 또 그 결과 속에서 예배의 구조, 내용, 정신 등을 찾아보고 그에 비추어 오늘날 주요 개신교회들의 예배문서들을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이론과 실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Key words)** : 초대교회 주요예배, 신약의 말씀예배와 성찬예배, Didache, Apology, Apostolic Tradition, Apostolic Constitutions, 현대개신교 예배 ■